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50호 [루게 제23467호] 주체100(2011)년 5월 30일 (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조종친선의 강화발전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한 1만 5000여리장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신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광범히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신 소식을 26일과 27일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호금도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비공식방문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호금도동지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온가보, 가경림, 리장준, 승근평, 리국강, 하국강, 주영강과 각각 상봉하시고 담화를 나누셨다.

호금도동지는 베이징에서 김정일동지와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연회를 차리셨다.

호금도동지는 회담에서 중국 당과 정부와 인민을 대표하여 김정일동지의 중국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셨다.

호금도동지는 김정일동지의 이번 중국방문은 그이께서 중조친선을 얼마나 중시하시는가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고 지적하시었다.

또한 최근 중조관계에서 이룩된 새로운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전통적인 중조친선의 대를 훌륭히 이어가는데서 역사적 책임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호금도동지는 중국측은 조선측과 함께 공동의 노력으로 중조친선 우호협조관계를 추동하며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더 큰 기여를 하려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호금도동지와 중앙의 지도간부들의 뜨거운 환대에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중국공산당 창건 90년을 맞게 되는 전체 중국공산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었다.

그이께서는 방문기간 느슨은 중국대륙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에서 급속히 변모되고있는 중화대지의 약동하는 발전상에 대해 직접 목격할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었다.

중조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시고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두 나라로세대령도자들의 숭고한 뜻과 조종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려는 의지와 결심을 다시금 천명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중국당과 정부가 조종친선을 시종일관 전략적높이와 전망적인 각도에서 지지하고 사회주의를 고수하며 나라의 부강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해주고있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었다.

호금도동지는 조선이 인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취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축원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중국인민이 제 12차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인 올해에 자랑찬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고 지적하시었다.

쌍방은 또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및 지역문제 특히 동북아시아정세와 관련하여 진지하고 깊이있는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속소를 방문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총리인 온가보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와 결심을 나누시었다.

그이께서는 베이징교외에 있는 신주디탈공사를 참관하시었다.

중국의 《인민일보》 5월 27일부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호금도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중국을 비공식방문하시고 베이징과 함께 흑룡강성, 길림성, 강소성을 돌아보신 소식을 보도하였다.

호금도동지는 베이징에서 김정일동지와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환영연회를 마련하시었다.

호금도동지는 회담에서 중국당과 정부와 인민을 대표하여 김정일동지께서 또다시 중국을 방문하시것을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그이 이번 방문이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공고발전시키는것을 고도로 중시하고있는데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고 지적하시었다.

호금도동지는 중국당과 정부가 언제나 전략적높이와 전망적인 각도에서 중조관계를 틀어쥐고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진우호, 협조강화의 정신을 견지하였으며 시종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공고발전시키는것을 확고부동한 방침으로 삼고있다고 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호금도동지의 따뜻한 초청과 열렬한 환대에 사의를 표시하였으며 그와 두 당, 두 나라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시고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시었다.

쌍방은 조선반도정세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 관해 깊이있는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방문기간 목단강과 장춘, 양주, 남경에서 공업과 농업, 과학기술, 상업 그리고 인민생활과 관련한 대상들을 참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목단강의 해빙농장

에서 농장의 산업화와 도시화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으며 농장종업원의 살림집을 방문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장춘에서 장동복핵심구역건설계획전람관을 돌아보시고 중국제1자동차집단공사를 참관하시어 조립호르몬과 생산기술, 자동차의 성능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양주에서 전자도시와 지능전력망 등 고도기술제품연구와 생산에 관한 유관책임자의 소개를 청취하시었으며 화운소파대형시장을 참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남경판다과학기술공사에서 기업의 최신형액정전자제품 생산정형을 료해하시었다.

구부의 브랜짜 라미나톤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5월 26일 중원총리 온가보와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도 상봉하시었다.

중국의 중앙TV방송, 르포와의 이따르-따스통신, 미국의 CNN방송, VOA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도쿄신보》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호금도동지는 고위급예왕과 경제 및 상업분야에서의 협조확대 등 쌍방관계에서 성과가 이룩된데 대해 평가하면서 조선반도정세 등 중요문제에서 두 나라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있다고 하시었다.

이번 중국방문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이러한 관계들을 고도로 중시하시고있다는 것을 중국측에 보여주었다.

호금도동지는 호혜협조를 비롯하여 사회경제적발전을 고무추동하기 위해 보다 큰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베이징과 평양사이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라고 하시었다.

또한 지역과 국제문제들에 관한 사소통과 조를 잘해나갈것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할것을 호소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방문기간 국무원총리 온가보와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도 상봉하시었다.

중국의 중앙TV방송, 르포와의 이따르-따스통신, 미국의 CNN방송, VOA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도쿄신보》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일심단결의 위력을 분출시키는 힘있는 정치사업

지금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조종친선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너무나 중국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광과 축원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너무나 외국방문에서 돌아오신 장군의 후식도 없이 편이어서 최원발전소건설을 찾았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고와 불멸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조국의 륜성변명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 있습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종친선의 강화발전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이룩하신 령도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시안의 모든 당조직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역사적인 중국방문과 관련한 혁명활동보도가 실린 당보를 통한 교양사업을 일제히 진행하도록 하였다.

시당위원회일꾼들은 시안의 모내기전투장과 경공업공장을 비롯한 대교전투장들에 달려나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중국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고와 불멸의 업적을 감동깊게 해설전함으로써 그들의 가슴마다에 장군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뜨겁게 차넘치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시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중국방문과 관련한 혁명활동보도가 실린 당보도, 해설담화를 활발히 벌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수도의 모든 일터들과 거리와 마을, 가정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 리움과 총정의 승결로 차넘치게 하고있으며 전투장들마다에서 새로운 혁신이 창조되게 하고있다.

자강도당위원회에서는 역사적인 중국방문에 이어 최원발전소건설을 찾았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승리에 대한 새로운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고와 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일꾼들과 회천시, 강계시, 만포시, 초산군, 자성군을 비롯한 시, 군당위원회일꾼들은 전투장들에 달려나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중국방문성과를 해설전하는 사업을 박력있게 벌리고있다.

특히 너무나 중국방문의 피로도 무실 사이없이 최원발전소건설을 찾았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애민의 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깊이 체득시켜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북돋아 주고있다.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역사적인 중국방문과 관련한 혁명활동보도를 통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역사적인 중국방문성과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이룩하신 장군님의 업적을 해설전하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도안의 모내기전투장들과 황해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농업부문의 전투장들마다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해설전하는 사업이 일제히 진행되어 대중의 심장을 세차게 울게 하고있으며 눈부신 사업성과들이 이룩되게 하고있다.

함경남도당위원회에서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역사적인 중국방문에서 이룩하신 업적에 대한 교양사업을 박력있게 진행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일꾼들은 흥남비료련합기업소, 통성기제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중요공업부문과 모내기전투장들에 달려나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적교양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리고있다.

함흥시, 단천시, 함주군, 금야군을 비롯한 도안의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도 일꾼들과 선동원들이 들끓는 전투장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해설전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 리움을 안고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

하도록 하고있다.

평안북도당위원회에서는 역사적인 중국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업적에 대한 교양사업을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일제히 진행함으로써 도안의 모든 전투장들이 혁명적열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신의주시, 정주시, 동림군, 선천군을 비롯한 도안의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모든 일꾼들이 모내기전투장들과 경공업공장에 달려나가 너무나 중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어 최원발전소건설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애민의 로고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깊이 있게 해설전함으로써 일터마다에서 들끓는 생산적양성이 일어 나게 하고있다.

평안남도, 황해남도, 함경북도, 강원도, 량강도당위원회들에서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역사적인 중국방문에서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에 대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 리움을 안고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드높은 혁명적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영철

천만의 심장은 높인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역사적인 중국방문에 이어 최원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은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온 나라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소식으로 들끓고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과 그 리움을 안고 있다.

내각사무국의 조용학동무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또다시 최원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금할수 없었다. 조종친선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너무나 길게 다녀오신 위대한 장군님께 조국인민들이 미처 감사의 인사도 올리지 못하였는데 인민을 위하여 또다시 강행군길에 오르신것은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위대한 장군님의 이번 현지지도는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의 서사시로 길이 빛날 것이다.》

이것이 이 땅 그 어디에서나 터져나오는 천만민들의 절절한 심장의 목소리이다.

◇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 첫자리는 언제나 우리 인민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인민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고있으며 인민들은 그를 진실로 존경하고 따르고있습니다.》

어버시령면에서는 생전에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김정일동지의 정치에서 기본 특성을 이룬다고, 김정일동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어이 해내야만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세상에는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와 같이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강그러 다 바치시는 절세의 위인이 없다. 인민을 위해서는 타산을 따지지 않자니 하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지론이다. 외국방문의 길에서도 두고온 인민을 생각하시며 하루빨리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마음쓰시는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하늘처럼 믿고 삼나다고 노래부르며 경애하는 장군님께 운명도 미련도 다 말고 따르는것은 인민의 위대한 어머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분출이다.

◇ 위대한 당의 령도파라 강성변영의 한길로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지금 최원발전소의 군건설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로고를 가슴뜨겁게 새겨 완공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총공격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외국방문성과를 인민생활대교조의 지랑한 승리로 빛내기 위한 생산열정을 드세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누구나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강행군길에 보폭을 함께 하며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를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한다. 최원발전소의 군건설자들처럼 당의 결정지시라면 물과 불속이라도 서슴없이 뛰어들어 단숨에 걸사판철하고야마는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모내기전투성과 계속 확대

서해별방농촌들

위대한 장군님의 역사적인 중국방문소식에 접한 서해별방농촌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모내기전투에 열광을 충전중하여 지난해 같은 시기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여 모내기실적을 올리고있다. 속천군 일꾼들은 모내기의 모든 공정이 치차처럼 맞물리도록 조직사업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고 매일 총화사업을 실속있게 함으로써 모든 작업반, 분조들에서 그날계획은 그날로 이겼으며 수확도 높고있다. 안주시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씨매치기를 한주일이상 앞세워 모내기를 일제히 확대해나가고있다.

량평군 삼지강협동농장과 안악군 통산, 경지협동농장들에서 모내기를 끝내며 이어 그대열이 늘어나고있다.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안의 협동농장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올해농사를 본때있게 지어 나라의 식량문제해결에서 한몫 단단히 할 열의를 안고 애국의 열정을 남김없이 바쳐가고있다. 제병분과 연안군, 배천군을 비롯한 연백면안의 농촌들에서는 씨매치기를 확고히 앞세우면서 모내기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고있다.

기계모내기비중을 높이는데 중심을 두고 모내기준비를 빈틈없이 갖춘 열두삼천리면안의 농촌들이 모내기전투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문덕군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모내기에의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여 모내기실적을 올리고있다. 속천군 일꾼들은 모내기의 모든 공정이 치차처럼 맞물리도록 조직사업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하고 매일 총화사업을 실속있게 함으로써 모든 작업반, 분조들에서 그날계획은 그날로 이겼으며 수확도 높고있다. 안주시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씨매치기를 한주일이상 앞세워 모내기 일제계획을 이겼으며 수확도 높고있다. 많은 면적의 수직과를 성과적으로 한 농정협동농장을 비롯하여 증산군안의 협동농장에서도 모내기실적을 높여나가고있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앞선 논벼재배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는 조건에 맞게 씨매치기와 물갈이 등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모내기에의 가동률을 높이고있다. 푸산군, 수안군, 신계군안의 협동농장일꾼들과 은파군, 승호군을 비롯한 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 대교조의 불길들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강선의 로동계급 본사기자 김충훈 찍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최첨단의학과기술로 사회주의무상치료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자!

함께 책임지는 립장에서 떠밀어줄 때

최근기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병원에서 이룩되고 있는 최첨단수준의 연구성과들이 인민보건사업과 나라의 의학과과학기술발전에 크게 이바지되고있다.

비루스감염증들을 예방치료할수 있는 인터페론생산의 공업화실현, 사람용조류독감성분예방약 개발도입, 출생한지 5개월도 안되는 어린이에 대한 심장수술에서 95%이상의 완치율보장...

최첨단과제에서 앞장서나가는 대학과 병원의 교원, 연구사들과 의료일군들을 만나보았을 때 이들은 이주동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교원, 연구사, 의사들의 과학연구사업을 함께 책임지고 적극 떠밀어준 협력기행의 일군들부터 소개해주시지요.》

대중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대학이 이룩하고 있는 성과의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과학기술행정기관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대학과학연구부의 한 일군을 만났을 때 그는 결코저에 《분공안》이라고 쓰여진 책자를 내보여주었다.

홍순철, 김철, 최승광, 강리해 등 일군들의 이름앞에는 중요

김일성종합대학

연구과제담당자들의 이름과 함께 그 수행을 함께 책임진다는 분공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었다.

대학책임일군도 과학행정에서 분공을 받아 수행하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과학행정일군은 그것은 스스로 받아안은 분공이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사람용조류독감성분예방약 개발연구가 진행되던 연구기에서 애로가 제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였다. 대학의 많은 일감이 당책임일군을 기다렸고 당시 건강상태도 좋지 않았지만 그는 주저없이 제기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헌신로 급히 떠났다. 언젠가 과학평의회에서 신중히 토론되던 문제점들도 담당자들이상으로 깊이 파고들어 방도를 찾으며 마음을 합쳐주던 책임일군이 헌신까지 찾아와 결된 문제를 풀어줄 때 연구사들의 감동은 참으로 컸다.

후날 대학의 어느 한 일군을 만난 자리에서 연구과제책임자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우리 교원, 연구사들이 제일 무거운 때가 언제인줄 아십니까.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함께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협력기행의 일군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 기쁨을 바로 우리가 헌신에서 느꼈던 것입니다.》

... 최첨단을 향해 달리는 개척자

평양의학대학 일군들의 사업에서

결된 문제들을 제때에 극복하고 최첨단과제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주는데 실지로 이바지되고있다.

창조적이고 책임적인 일본세가 엮여있는 일군들의 분공안에는 월에 1차례 분공수행을 분석총화하고 대책한 정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있다.

분공수행과정과 객관적이고 엄격한 총화를 통해 스스로 자신에 대한 요구성을 높이고 최첨단과제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가기 위해 아글라글 노력하고있는 대학일군들의 혁신적인 사업기행은 경탄할만하다.

대학일군들의 분공수행과정에서 최첨단과제를 위한 투쟁에

떠어나신 대중의 열의를 북돋아주고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되었다면 분공수행과정에 대한 정상적인 총화는 지도방조사업을 개선하며 일군들을 더욱 분발시키는 또 하나의 좋은 계기로 되고있다.

이처럼 스스로 제기하고 받아안은 일군들의 분공수행과정은 대학의 교원, 연구사, 의료일군들을 최첨단과제에로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대학일군들의 사업은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그 어느 단위에서나 일군들이 과학자, 기술사들의 과학연구사업을 함께 책임지는 립장에서 적극 떠밀어줄 때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수 있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글 및 사진 분사기자 오 현

보건사업의 중요한 요구

◇ 지금 보건부문의 모든 단위에서 최첨단과제들이 세차게 일고있다.

최우질병치료에 좋은 치료기를 개발제작한 신의주시의 한 의료일군을 만나보아도, 비루스성질병을 예방치료할수 있는 생물공학약품인 인터페론생산방법을 최첨단수준에서 확립하고 생산의 공업화까지 실현한 과학자들, 항생제에 저항성을 가지는 균들의 활성을 억제시킬수 있는 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힌 의료일군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도 불라는 결의는 하나같다.

이들은 보건부문의 그 어느 단위에서나 세차게 타진하는 최첨단과제의 열풍은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결심, 확고한 의지가 안아온것이라고 한결같이 이야기하고있다. 그러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단력과 배양으로 최첨단과제들을 힘있게 벌려 개척한 의학과과학기술들을 더욱 완성발전시켜 거이 세계적패권을 쥐기 위한 투쟁에 자신들의 체력과 재능을 광그리 바칠것을 결의하였다.

◇ 의학과과학기술을 하루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보건발전의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보건사업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요한 과학기술사업입니다.》

사회주의보건사업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켜 그들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인민적시책을 집행하는 실천행동으로서 질병을 예방하고 진단, 치료하기 위한 과학기술적수단과 방법을 기초로 하는 과학기술사업이다.

과학기술사업인 보건사업은 자체의 기술인재를 요구한다. 의학과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보건일군양성사업을 개선강화하여야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이 의거하여 의학과과학

평양시 위생방역소에서

눈을 세계를 굽어보는 단력과 배양으로 검사실비, 기구들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색과 탐구, 이룩한 실천으로 남달라 말을 이어갔다.

리방원동무를 비롯한 해당과의 일군들은 최첨단과제에 대한 위생방역사업을 실현할 목표를 내세우는데 맞게 짧은 기간안에 물론조사할 때를 놓치지 않고 준비를 신속있게 해나갔다.

만민의 준비를 갖춘 이들은 의회를 합쳐 자용증추카래드를 비롯한 각종 검사실비를 자체로 제작해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위생방역에 필요한 검사장비도 수립함

다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면서 자체로 방사선측정기를 제작하고 그 리용에서 나서는 위생안전성기준값을 작성하기 위한 사업을 밀고나가고있다. 이들에게 뒤집어쓴 파, 실들에서조차 창조적인 사색과 탐구로 대고조는 하루하루를 자랑찬 성과로 빛내어가고있다.

방역소에서는 이동식검사기 제작시회를 조직한데 이어 파, 실별로 자료합평회 및 기술협의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누구나 높은 실력으로 본인일무수행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있다.

이곳 일군들의 드높은 열의 속에 마련된 검사실비, 기구들은 수도의 위생방역사업개선에 적극 리용되고있다.

진 철

우리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들게 된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꽃피울수 있는 아름다운 소명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뜻깊은 명절날은 물론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의 집을 찾아와 건강과 생활에서 제기되는것이 없는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안흔한 결명회동무와 함께 저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품들과 갖가지 귀한 보약들을 안겨주고 집안팎을 깨끗이 거두어주며 빨갛고 마른해 주곤 합니다.

신인주시 동화동 13 인민반 김길남

물결기승전파대를 넘바다의 푸른색을

병원의 그 어디에 가보아도 최첨단을 향하여 더 높이, 더 멀리 비약하려는 이곳 의료일군들의 불같은 열의가 엿보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병원방을 늘리고 병원의 불필요기술적도구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밑에 병원의 일군들은 진지한 토의를 거쳐 대담하고 용이 큰 첨단과제목표를 제시하였다.

첨단과제의 열풍은 우리 나라의 의학과연구중심성에서부터 일기 시작하였다.

박사, 부교수 허봉수 동무를 비롯한 이곳 의료일군들은 여러가지 약조성분이 혼합된 뇌혈전정맥주사약을 개발 도입할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이것은 첨단기술에 의거하여 접지방으로 된 주사구의 주요성분을 밝히고 정제를 최고의 수준에서 보장해야 하는 어려운 연구과제였다.

결실을 난관이 앞을 막아

우리 여자축구팀과 도이첼란드여자축구팀 경기 진행

2011년 너차월드컵경기대회를 앞두고 우리 나라 여자 축구팀과 도이첼란드여자축구팀의 친선경기가 도이첼란드의 지방도시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여자축구팀은 경기를 통하여 전술과 운영에서 일정한 경험을 쌓았다.

6월 26일부터 도이첼란드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 웰남주 상을

김정일 웰남주재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가 25일 뎨뎨 중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수상상을 의례방문하였다.

석상에서 수상은 지난해에 조선로동당대외외교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하며 김정일동지의 령도

우리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중앙병원으로 파송되던 때에는 역에 나와 성의껏 마린한 저의 눈에 맞는 안경까지 끼워주었습니다.

천혈육이면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위대한 장군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우리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이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저의 작은 힘이나마 다 바쳐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신인주시 동화동 13 인민반 김길남

당시 자연보호정책 관철에 바쳐온 30여년

복청군기름개구리양식공사업소 지배인 최병선동무

버섯에 대한 지식부러 습득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버섯에 대한 자료사와 연구를 심화시켜나갔다.

포자가 어떻게 되어 버섯이라는 큰 실체로 되는지 파고들수록 흥미있었다. 건강장수에 좋다고 하는 버섯은 그 맛 또한 독특하였다. 그의 노력으로 집에서 여러 종류의 버섯들이 돋아나는것을 본 안에는 들이켜진 자식들도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하였다. 하지만 최병선동무의 마음은 졸음 버섯을 팔수 없다고 하는 거 하는게 가졌었다. 이런 생각을 안고 그는 버섯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나갔다.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 해를 넘기며 거듭되는 시험과정에 최병선동무는 종전처럼 유리병을 쓰지 않으면서 손실배양기간을 종전보다 절반이나 단축할수 있는 새로운 버섯배양술을 연구완성하였다. 여러차례 실험에 걸쳐 그가 발표하는 버섯배양과 관련한 새 기술들과 합리적인 재배방법들은 부분과학기술발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계에서도 이룩없는 버섯연구사의 연구성과를 두고 놀라워하였다.

한진한진의 연구성과가 우수한 평가를 받음에 따라 최병선동무는 기뻐했다. 그러나 그는

혈관 이식수술의 능수

자랑도인민병원 일반외과 과장 권철우동무는 최첨단과제들과 관련한 당의 사상을 심장에 새겨안고 이룩한 노력을 기쁘게 하고자 할 때의 한 혈관 이식수술에 성공하였다.

권철우동무는 이 문제를 창조적인 사색과 실천으로 훌륭히 해결한 학생들이 대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지방병원에서는 혈관 이식수술이 혈관 이식수술을 깨뜨렸다.

권철우동무는 이 문제를 창조적인 사색과 실천으로 훌륭히 해결한 학생들이 대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지방병원에서는 혈관 이식수술이 혈관 이식수술을 깨뜨렸다.

합정면도인민병원 내과실장 김성우동무는 신우신염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 중요한 의의

김성우동무는 신우신염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신우신염은 신장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신장기능을 연구 개발하였다.

김성우동무는 신우신염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신우신염은 신장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신장기능을 연구 개발하였다.

우리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들게 된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꽃피울수 있는 아름다운 소명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뜻깊은 명절날은 물론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의 집을 찾아와 건강과 생활에서 제기되는것이 없는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안흔한 결명회동무와 함께 저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품들과 갖가지 귀한 보약들을 안겨주고 집안팎을 깨끗이 거두어주며 빨갛고 마른해 주곤 합니다.

신인주시 동화동 13 인민반 김길남

독자의 편지

제가 이렇게 펜을 들게 된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만 꽃피울수 있는 아름다운 소명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뜻깊은 명절날은 물론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의 집을 찾아와 건강과 생활에서 제기되는것이 없는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안흔한 결명회동무와 함께 저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품들과 갖가지 귀한 보약들을 안겨주고 집안팎을 깨끗이 거두어주며 빨갛고 마른해 주곤 합니다.

신인주시 동화동 13 인민반 김길남

우리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중앙병원으로 파송되던 때에는 역에 나와 성의껏 마린한 저의 눈에 맞는 안경까지 끼워주었습니다.

천혈육이면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위대한 장군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우리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이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저의 작은 힘이나마 다 바쳐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신인주시 동화동 13 인민반 김길남

우리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중앙병원으로 파송되던 때에는 역에 나와 성의껏 마린한 저의 눈에 맞는 안경까지 끼워주었습니다.

천혈육이면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위대한 장군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우리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이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저의 작은 힘이나마 다 바쳐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신인주시 동화동 13 인민반 김길남

우리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중앙병원으로 파송되던 때에는 역에 나와 성의껏 마린한 저의 눈에 맞는 안경까지 끼워주었습니다.

천혈육이면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위대한 장군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우리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이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저의 작은 힘이나마 다 바쳐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신인주시 동화동 13 인민반 김길남

우리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중앙병원으로 파송되던 때에는 역에 나와 성의껏 마린한 저의 눈에 맞는 안경까지 끼워주었습니다.

천혈육이면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위대한 장군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우리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이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저의 작은 힘이나마 다 바쳐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신인주시 동화동 13 인민반 김길남

우리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중앙병원으로 파송되던 때에는 역에 나와 성의껏 마린한 저의 눈에 맞는 안경까지 끼워주었습니다.

천혈육이면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위대한 장군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우리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이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저의 작은 힘이나마 다 바쳐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신인주시 동화동 13 인민반 김길남

우리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중앙병원으로 파송되던 때에는 역에 나와 성의껏 마린한 저의 눈에 맞는 안경까지 끼워주었습니다.

천혈육이면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위대한 장군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우리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이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저의 작은 힘이나마 다 바쳐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신인주시 동화동 13 인민반 김길남

우리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중앙병원으로 파송되던 때에는 역에 나와 성의껏 마린한 저의 눈에 맞는 안경까지 끼워주었습니다.

천혈육이면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위대한 장군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우리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이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저의 작은 힘이나마 다 바쳐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신인주시 동화동 13 인민반 김길남

민족자주와 애국애족의 의지가 어린 조국통일로선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에 기여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통일번영의 새 역사를 창조해나갈 신념과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20세기 초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했던 우리 민족이 오늘을 주제로 존엄하고 선진으로 위대한 김일성영웅으로 세계에 빛을 뿌리고 있다.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겨레모두가 다시금 새겨안는 분별의 진리는 아버지수령님께서 민족자주의 새 봄을 맞이할수 있었으며 존엄은 민족의 영예와 자부심도 간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외세에 의해 나라와 민족이 갈라져 낫날마다 조국통일을 민족자주의 파촉과 내세우시고 일관되게 하나의 조선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며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 주셨다.

위대한 명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교범이건지, 조국통일로선은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민족자주의 로선이며 통일조국의 부강발전과 전민족의 통일번영을 위한 애국애족의 로선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로선은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민족자주의 로선이다.

자주성은 독립국가의 기본표징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 항일의 혈전민리를 해쳐 조국해방의 역사적업무를 이룩하신것도, 장강 반세기동안 조국통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강그러 다 바치신것도 바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나라의 분열자체가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것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다름아닌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를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시종일관 확고히 견지하신 조국통일로선의 본질은 통일문제를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그 주인인 조선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나라의 분열을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자주의 힘으로 끝장낼때 대한 주체적인 조국통일사상을 제시하시였을뿐 아니라 언제나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원칙에서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시었다. 또한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었다.

해방직후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주구분열의 《단선단정》 조작책동으로 민족분열의 위험이 조성되었을 때 련사적인 남북협력회의를 소집하시어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하여 민족자주의 성취하도록 하시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1970년대에 분열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온 겨레를 불러 일으키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며 격렬한 투쟁이 있던 북과 남 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고 북과 남 사이에 공동성명과 합의사항을 채택하게 하여 조국통일위업의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으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우리 수령님께서 위대한 창시자로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과정에 이룩하신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민족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3대원칙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민족자주로선의 빛나는 구현이며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3대원칙을 마련해주시었으며 우리 민족은 자주적 기치따라 한치의 탈선도 없이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전진시켜올수 있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제시한 통일방안과 제안들은 다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고있으며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일관되어있다.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주제로 내세우시고 조국통일위업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자주의 힘으로 완성할수 있는 통일조국의 부강발전과 전민족의 통일번영을 위한 참다운 애국애족의 로선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로선은 통일조국의 부강발전과 전민족의 통일번영을 위한 참다운 애국애족의 로선이다.

통일은 애국이고 민족이 통일번영하는 길이며 분열은 애국이고 민족이 망하는 길이다. 통일만이 분열의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애국애족의 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은 통일을 바라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여 온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하르빨리 통일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길을 밝혀주셨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나라가 분열된 첫 시기부터 모든것을 조국통일애국애족의 로선으로 전진시키시며 민족의 일치를 넘나들고 공동의 이익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국통일방안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온 겨레를 불러일으키셨다. 사상과 리념, 정권과 신

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겨레를 한데 묶어 안는 아버지수령님의 넓은 도량과 나라와 민족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수령님의 숭고한 뜻이 담겨진 조국통일로선들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통일애국투쟁으로 부른 고무적기치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은 북과 남이 7.4 공동성명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기이며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겨레를 대단결과 거룩한 통일운동으로 매밀어주는 위대한 정치방향으로 그 위력을 발휘하였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조국의 진보와 발전방도, 민족의 통일번영을 위한 가장 정당한 길을 밝혀준 휘황한 실재도이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민족통일국가창립방안이야말로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융합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평하고 순조롭게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독창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식이다.

련사와 현실은 조선민족이 둘로 영원히 갈라지는것을 막고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조선에 대한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끝장내고 우리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유일하게 바른 길은 연방제방식의 통일이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 주셨다.

예로부터 슬기롭고 문명하며 애국심이 높고 단결력이 강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고유한 특질을 누기보다더 귀중히 여기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일찍이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라는 애국애족의 구호를 제시하시고 각계각층 조선동포들을 통일애국위업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시었다. 하기에 목결많은 운명의 길을 걸어온 각인 계급, 계층의 사람들까지도 수령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대단결사상에 매혹되어 자신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결합시키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족의 통일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나설수 있었었던 것이다.

정녕 아버지수령님은 우리 민족에게 주시실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면서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어느 하루도 쉬임없이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치신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은 오늘 겨레하는 김일성장군님에 의하여 변함없이 계승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자주와 애국애족으로 일관된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원칙으로 정립해주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온 겨레가 그 기치따라 조국통일의 한길로 곧바로 나아가도록 명령한 김일성장군께서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 세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리정표로 마련해 주신 6.15 공동선언과 그 실천장령인 10.4 선언은 수령님께서 변함없이 견지하신 조국통일로선의 빛나는 구현이다.

우리 민족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에 의하여 조국통일로선을 받들어나가는 길에 겨레의 숙원인 통일번영과 애국애족이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김일성민족의 긍지와 자존심을 안고 통일애국의 기치높이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밝은 앞날을 하르빨리 앞당겨와야 할 것이다. 최 철 순

오늘 남녘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높이 력사에 내달리는 이복이아름답고 필승불패의 난국을 헤치시며 이룩하신 혁명실적으로 전진시킨 성스러운 애국애족의 로선인 조국통일로선의 대추를 따 먹음으로써 뜨겁게 간직하고 있는 김일성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를 열렬히 칭송하고있다.

서울의 한 정치학교수는 집에 찾아온 제자들에게 《나는 김일성장군님의 선군정치에 완전히 매혹되었다. 그에 혁명의 주역군으로 보고 그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선군정치야말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줄수 있는 가장 정당하고 올바른 정치. 민족수호의 보검, 민족의 열쇠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선군의 길에 조국통일도 있고 평화번영도 있다.》고 말하였다.

이북바로알기회의 어느 한 회원은 《김일성장군님의 선군정치의 자욱이 새겨지는 곳마다에서 새 기적이 일어나고 공창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며 아름다운 지방하는 명산, 명승들이 문화유산으로 꾸러져 민족에게 기쁨을 더해준다. 그분께서 한번 다녀가신 농촌마을들에는 아담한 문화주택들이 즐지어 일떠서고 전선속의 무동원을 방불케 하는 선경이 펼쳐져 찬란한 미세를 확신케 한다.》고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 부대들과 인민경제 중요단위들을 돌보아주시고 현지에 계시는 분들에게 대한 소식에 접한 자주학회의 한 선원도 《김일성장군님의 강령은 이제에 위대한 현실을 펼쳐놓았다. 이복이 자주로 존엄을 떨치고 자립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나라로 그 위력을 온 세상에 높이 선양하고있다는 바로 천출높이인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정녕 김일성 장군님의 영도따라 막강한 군력과 천만군민의 일심일결로

강성대국의 평마루를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이복이아름답고 필승불패의 난국을 헤치시며 이룩하신 혁명실적으로 전진시킨 성스러운 애국애족의 로선인 조국통일로선의 대추를 따 먹음으로써 뜨겁게 간직하고 있는 김일성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를 열렬히 칭송하고있다.

현대정치사를 연구하는 한 학자는 《이전 조선을 비롯한 동유럽사회주의 나라들의 붕괴로 인한 사회주의의 몰락과 후속한 자연재해의 연속 그리고 거기에 계국주의자들의 악랄해지는 반공공작들은 다른 나라들 같은 열대반도 더 뜨겁게 그런 증언한 시련이었다. 그 류폐없는 시련과 난관들은 바로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어 하나하나 극복되었다. 단순히 극복된것만이 아니라 북에 강성대국건설의 준마가 질풍같이 달리는 인류사적기적, 만연이경탄하는 위대한 현실이 펼쳐졌다.》고 회고하였다.

한 인사는 출판물에 투고한 글에서 《선군정치의 목표는 민족의 행복한 생활》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비범한 모험을 뛰어난 영도, 지질적 에너지와 열정으로 북을 강성대국으로 건설해나가고계신다.》

최근 북의 경제강국건설에서는 새로운 비약이 계속 일어나고있다.

김일성장군님의 영도로 북은 사회주의강성대국의 평마루에 올라 세계앞에 그 대문을 활짝 열 날을 앞당겨오고있다.

국민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는 민족이 세상에 부럽음이 사는 강성대국, 김일성주석께서 영도에 걸쳐 우리 민족에게 안겨주시려던 강성대국을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완성하고 계신다. 2012년은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전세계인류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포하는 력사적인 해로 될것이다.

정녕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불멸의 선군정도는 남녘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감동으로 불타고있으며 그들에게 통일조국의 밝은 앞날에 대한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본사기자

6.15 공동선언리행에 나설것을 요구

남조선의 통일운동가들로 구성된 자주평화통일통성단 선원들이 23일 서울에서 6.15 공동선언리행을 요구하며 통성투쟁을 벌였다. 그들은 현 《경건》이 《천안》 호정물사건을 구실로 동족대결을 고취한 결과 북 남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가 고조

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북과 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얻어올수 있는 평화와 통일이 더 긴장과 전쟁을 통해 차려질것은 파멸무엇이라는것을 현 당국이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그들은 인명하였다. 그들은 북남모두에게 리익이 되고 평화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리행에 현 《정부》가 하루빨리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정부는 6.15 공동선언 리행하라!》, 《리명백은 북과 남의 대화에 무조건 나서라!》, 《현인력 통일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호전광들의 리언은 전쟁연습소동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피괴협동참모본부가 30일 오후 3일 간에 걸쳐 《태극》호편을 벌릴것이라고 공표하였다. 이번 군사연습에서 호전광들은 합동참모본부의 각 군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휘구조개편안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그 효률성을 확인할것이라고

공언하였다. 한편 지난 26일 피괴륙군의 한 부대가 남조선강릉도 철원군 근교남 마천리역에서 시속기포를 발사하여 작전지역으로 침투하는 호편을 감행하였다. 이에 앞서 25일부터 남조선강릉도 피괴군방부, 합동참모본부, 화생방방호사령부 등 관계자들이

이 사상 처음으로 생물테러 및 제대대우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 시대착오적인 반민족적, 반인민적정적으로 파산의 운명에 처한 피괴들은 어떻게라도 집권위기에 벗어나보려고 미제의 대조선전략책에 편승하여 매일같이 반공화국대결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공격용직승기도 입책동을 비난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24일 피괴 국방부앞에서 112차 평화군 축적회를 가지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이 지난해 《천안》 호사건을 구실로 《5.24조치》를 취한데 이어 세계공격용무기구입에 대해적으로 나선데 대해 언급하였다.

국방부가 미국 포병회사의 신형직승기를 끌어들이기 위한 교섭을 밀실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고있다고 그들은 밝혔다. 그들은 당국이 북의 종심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이 승기구입에 막대한 돈을 들이부려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직승기구입을 중지시키는 것은 조선반도긴장을 해소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도 당하는 로동자, 농민의 생활과 관련한 중요한 싸움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여기에 각계각층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집회에서는 피괴군방부 장관에게 보내는 항의문이 광포되었다.

폭압에 명줄을 건 파쇼강패집단

최근 남조선에서 통일운동단체들과 애국적인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탄압소동이 련이어 감행되고있다.

지난 4일 피괴정보원과 경찰당국은 서울과 대전, 광주와 제주 도에서 일제히 6.15 공동선언리행 청년학생련대의 전진, 현직선원들의 집과 사무실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소동을 벌려놓고 4명의 선원들을 체포해가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파쇼경찰은 얼마전 총정남도와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진, 현직선원들의 집을 수색하는 망동을 부리었으며 어느 한 주민의 인터넷활동을 악명없는 《보안법》에 걸어서 그 집을 강제수색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뿐만아니라 저들의 합선침범 사건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협박, 모욕하고 경찰과 사법기구를 동원하여 마구 탄압하였으며 대학생들의 경제학술단체를 《리직단체》로 몰아 탄압하면서 기무사령부까지 동원하여 비밀리에 수사를 벌리는 파쇼집단행을 거침없이 감행하였다. 이번 보충 《선거》에서 민심의 존엄한 심판을 받은 보수패당은 집권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출로를 저들의 비위에 대대적인 단죄와 인사들에 대한 거대적인 파쇼탄압에서 찾고 사회전반에 걸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날로 높아가는 정보소리의 투쟁기운을 막아보려 하고있다.

파쇼당국이 이번 보충 《선거》 이후 범민련 남측본부와 6.15 공동선언리행 청년학생련대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뿐만아니라 로동운동단체들에 대한 광판적인 탄압에 매달리면서 탄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다는것도 바로 그대문이다. 최근 검찰이 파괴투쟁에 참가하였던 학생자랑자로진들의 집과 사무실들을 2008년 미군산 소고기수입을 반대하는 위 체로, 처형하는 등 가혹한 탄압행위를 감행하였다.

예속과 굴종이 낳은 비극

보도리파와 같이 남조선에서 미군이 경사복도 철곡군의 미군기지에 많은 땅의 고엽체를 비롯한 유독성화학물질을 몰래 파묻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있다. 사실은 1970년대 말엽 당시 거기서 근무하던 미군사병들의 증언에 의해 폭로되었다. 사안이 리지자 미국은 《조사》요 뒤요 하리 부주장을 파우고있다.

미군은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안전같은것은 안중에 두지 않는다. 미국이 남조선과의 이른바 《동맹》을 증시하는것이 너스레를 떠는것은 남조선의 리익을 중시하여 북과 남의 리익을 대립시켜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산 증거로 된다. 미국의 반인륜적과 남조선에 대한 멸시정책은 이처럼 악랄하다.

남조선강점 미군의 만행과 미군범죄를 비호하는 행위 규탄

남조선의 민주노동당 대변인이 20일 논평을 발표하여 경사복도 철곡군 해방기지에 고엽체를 파묻은 남조선강점 미군의 죄행을 규탄하였다. 논평은 엄청난 량의 유독성화학물질을 몰래 파묻은 미군의 천인공도한 만행을 분노로 금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지금껏 이 땅에서 미군이 치외법권을 누리며 온갖 범죄행위를 저질러왔다고 하면서 이번 에 드러난 사건은 그 죄상이 심각하다고 논평을 밝혔다.

성명은 24일 환경부 장관 후보라는자가 미군의 고엽제 매몰처리와 관련하여 《자국 민보호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것이라고 생각한다.》는 황당무계한 망발을 늘어놓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인민들은 미군의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수급한 진실규명과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가 민중의 목숨과 환경의 안전보다도 법제적단언 미군을 비호해서라도 더 급급해하고 있다 성명은 규탄하였다.

과감한 반미, 반외국투쟁이로

사람의 건강과 생태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유독성화학물질을 남조선땅에 매몰했다는 유증적 증거는 사실이 드러났으니 여론이 무서웠을것이다. 본심은 문제의 유독성물질매몰사건으로 남조선에서 2002년에 있던 신호순, 심미선살해사건을 계기로 한 반미의 거세한 폭풍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심때문이다.

문제는 천미미 명줄을 걸고있는자들이 아직도 남조선에서 권력의 자리를 타고있는 민족의 존엄을 존중하고 남조선인민들의 리익을 해치고있는것이다. 리명백당장은 역사에 보기 드문 천미미제국의 무리이다. 집권하자마자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최우선과제》로 내세운 피괴들은 미국에 빌붙어 동족을 해쳐버리고 무전 애를 썼다. 그 대가로 남조선인민들의 슬한 리익이 섬겨바쳐졌을뿐이다.

리명백당장은 이번 에 이처럼 엄청난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특정한 향면 한다면 못하겠고있다. 피괴들이 《공공조》요 뒤요 하리만 미국이 《없다.》고 잘라라하면 그대도 받아놓고 몰러설 편이다. 미국에 운명을 맡긴 리명백당에게서 공정한 사건해명이나 배상같은것을 바라던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성명은 반미와 반외국투쟁에 남조선인민의 살길이 있다는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현 《정부》가 진상조사단을 시급히 구성하여 고엽제 매몰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개해야 할것이라고 논평을 주장하였다.

왜 관미군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경사복도 철곡군 해방기지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 기지내 지하수와 토양을 분석한 결과 허용한도의

30배이상 초과하는 발암물질들이 검출되었다. 현재 미군기지주변의 수백세대의 주민들이 지하수를 먹는물로 쓰고있으며 농사에 더 리용하고있다 한다.

전례없는 반인륜적범죄행위

남조선에서 미군강도들이 쿠비리에서 감행한 고엽제매몰사건의 진상이 드러나 여론이 즉각파문처럼 하고 있다. 지난 5월 16일 미국 아리조나주 한 텔레비전방송은 1970년대 남조선강점 미군의 고엽제매몰사건에 대한 증언자료를 보도하였다. 증언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남조선강점 미군은 지난 1978년 여름부터 그해 가을까지 경사복도 해방에 도사리고있다는 미군기지에서 강한 독성물질인 고엽제도람통을 몰래 파묻었다. 당시 남조선강점 미군기지의 《전정제고방》으로 불리우는 곳에 파묻어있었으며 일부는 이미 녹이 액체가 새는 상태였다고 한다. 당시 거기 에 동원되었던 미군증언자들은 고엽제매몰작업이 상판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었다는것과 자신들의 눈으로 견본에 《1967-1968년 월남 《에이전트 오벤지》》라고 신명하게 의연히 도람통을 직접 보았다

까지 매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고엽제의 위험성은 지난 시기 미제가 동남아시아나라를 반대하여 일으킨 침략전쟁을 통하여 명백히 드러났다. 1960년대 미국의 전쟁대포함으로 월남에 끌려갔던 많은 피괴군사병들이 미제군과 이 살포한 고엽제를 뒤집어서 고엽제를 잃었다는 각종 악성질병에 걸려 신음하고있다. 그들속에서 10여종의 암이 발생하고 그 피해가 후대에 계게 미치고있다는 사실은 고엽제 매몰사건으로 사용한 미제의 죄행의 후과가 얼마나 막심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고엽제의 생산과 사용, 보관은 국제적으로도 엄격히 금지되고있다.

치욕의 역사를 끝장내자

최근 남조선에서 미군강도들이 쿠비리에서 감행한 고엽제매몰사건의 진상이 드러나 여론이 즉각파문처럼 하고 있다. 지난 5월 16일 미국 아리조나주 한 텔레비전방송은 1970년대 남조선강점 미군의 고엽제매몰사건에 대한 증언자료를 보도하였다. 증언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남조선강점 미군은 지난 1978년 여름부터 그해 가을까지 경사복도 해방에 도사리고있다는 미군기지에서 강한 독성물질인 고엽제도람통을 몰래 파묻었다. 당시 남조선강점 미군기지의 《전정제고방》으로 불리우는 곳에 파묻어있었으며 일부는 이미 녹이 액체가 새는 상태였다고 한다. 당시 거기 에 동원되었던 미군증언자들은 고엽제매몰작업이 상판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었다는것과 자신들의 눈으로 견본에 《1967-1968년 월남 《에이전트 오벤지》》라고 신명하게 의연히 도람통을 직접 보았다

뿐만아니라 저들의 합선침범 사건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협박, 모욕하고 경찰과 사법기구를 동원하여 마구 탄압하였으며 대학생들의 경제학술단체를 《리직단체》로 몰아 탄압하면서 기무사령부까지 동원하여 비밀리에 수사를 벌리는 파쇼집단행을 거침없이 감행하였다. 이번 보충 《선거》에서 민심의 존엄한 심판을 받은 보수패당은 집권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출로를 저들의 비위에 대대적인 단죄와 인사들에 대한 거대적인 파쇼탄압에서 찾고 사회전반에 걸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날로 높아가는 정보소리의 투쟁기운을 막아보려 하고있다.

파쇼당국이 이번 보충 《선거》 이후 범민련 남측본부와 6.15 공동선언리행 청년학생련대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뿐만아니라 로동운동단체들에 대한 광판적인 탄압에 매달리면서 탄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다는것도 바로 그대문이다. 최근 검찰이 파괴투쟁에 참가하였던 학생자랑자로진들의 집과 사무실들을 2008년 미군산 소고기수입을 반대하는 위 체로, 처형하는 등 가혹한 탄압행위를 감행하였다.

미군의 환경오염행위를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남조선의 민주노동당 대변인이 20일 논평을 발표하여 경사복도 철곡군 해방기지에 고엽체를 파묻은 남조선강점 미군의 죄행을 규탄하였다. 논평은 엄청난 량의 유독성화학물질을 몰래 파묻은 미군의 천인공도한 만행을 분노로 금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지금껏 이 땅에서 미군이 치외법권을 누리며 온갖 범죄행위를 저질러왔다고 하면서 이번 에 드러난 사건은 그 죄상이 심각하다고 논평을 밝혔다.

성명은 24일 환경부 장관 후보라는자가 미군의 고엽제 매몰처리와 관련하여 《자국 민보호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것이라고 생각한다.》는 황당무계한 망발을 늘어놓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인민들은 미군의 행위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수급한 진실규명과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가 민중의 목숨과 환경의 안전보다도 법제적단언 미군을 비호해서라도 더 급급해하고 있다 성명은 규탄하였다.

위대한 영도자를 모시여 백승을 떨치는 불패의 당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고 존엄높은 당, 이것은 조선로동당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평이다. 하지만 조선로동당이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회세의 위인인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를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영도자로서 높이 모시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를 모심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은 높은 국제적 권위와 위신을 지니고 인류의 자주위업에 특출한 공헌을 하고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메리카의 어느 한 나라 인사가 한 말이다.

탁월한 영도자를 모시여 백승을 떨치는 우리에 위용 떨치는 조선로동당!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선군혁명영도도 우리 당을 비할 수 없는 위대한 정치가, 위인인 장군님을 모시여 백승을 떨치는 우리에 위용 떨치는 조선로동당!

우리 장군님은 세계정치계가 공인하는 위대한 정치가, 영도자의 격입니다.

주제 53 (1964)년 6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특기할 만한 계기를 열어놓은 역사적사건이었다.

일찍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천리해안의 예지와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자주시대 혁명적당원이 되어갈 길을 밝혀주시어 세계정치사, 혁명적당건설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으셨다.

에집트아랍사회주의당 위원장은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당을 철저히 김일성주석의 영도도 강화발전시키시었다. 그리고서는 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강대국을 건설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고 칭송하셨다.

메이꼬주체사상영도자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어 조선로동당을 김일성주석의 당으로, 백승을 떨치는 당으로, 강대국을 건설시키시었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항도자로서, 세계사회의운동의 전위대로 조선혁명을 세계혁명을 승리로 이끄는 길잡이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당명도업적은 길이 빛날 것이다.》

위대한 영도자를 높이 모신 우리 당은 결승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영도하여 우리 나라

를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전변시켰다.

지난 세기 말엽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집권당들이 붕괴되는 비극적사태들이 일어났다. 그때 국제반동들은 사회주의의 《종말》을 외란스럽게 떠들어댔다. 하지만 세계는 당의 영도밑에 우리 나라가 충격적인 세계정치지진에도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전진해나가는 장엄한 모습을 놀라움과 부러움을 안고 목격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이적인 현실을 두고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을 그 어떤 공파와 시련속에서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언제나 승리로 이끄는 로슈라고 전투적기백이 넘치는 가장 성공적인 당이라고 찬양하면서 우리 당의 영도의 현명성과 위력에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네팔공산당 (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장구한 기간 반제반미투쟁을 벌려왔으며 자기 제도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국방력을 더욱 굳건히 다져왔다. 오늘 조선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미국과의 침범한 정지 군사적대결에서 자기 의 귀중한 모든것을 훌륭히 지켜왔다. 이것은 전적으로 김일성주석의 선군혁명영도에 의해 마련된 승리이다.》

만약 이 한 인사는 김정일동지께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당과 혁명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오시며 이룩하신 업적 중의 하나는 조선로동당을 선군혁명의 항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이다. 조선로동당은 독창적인 선군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모든것을 해결해나가는 가장 혁명적인 당이며 전체 당원들이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일심단결되어있는 당이라고 찬양하였다.

로제야신론 《브이보르》는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영도자를 모시여 세계를 이어 백승을 떨치는 존엄높은 당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당의 위대성은 영도자의 위대성이다. 김정일영도자를 높이 모시여 조선로동당은 당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으로 공화국을 건설하고,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라섰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김정일영도자를 당과 혁명의 전두에 모신것을 얼마나 크나큰 민족적행운이라고 하는것을 실감으로 절감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김일성주석의 당으로 빛날것이며 당의 영도자로서 사회주의강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해 투쟁하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세련된 영도에 의해 세계혁명적당들의 본보기로, 선진국인류의 희망의 등대, 승리의 상징으로 그 위력을 과시하고있다.

캄보자의 한 신문은 《김일성총비서의 영도는 조선로동당의 위력의 원천》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투쟁로정은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승리와 영광의 력사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세계에는 수많은 정당들이 있지만 조선로동당과 같이 존엄한 력사의 폭풍우를 헤치며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것뿐 아니라 세계를 이어 자기 혁명적성격과 전통을 굳건히 고수하며 백승의 위력을 떨치고있는 당, 근로인민대중의 전위부대는 찾아보기 힘들다. 조선로동당은 선군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미국의 계속되는 반공화국책동속에서도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나가고있는 당이다.》

세계가 한결같이 격찬하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당이 필승불패의 당으로 자기의 위력과 존엄을 높여 높이 떨치고있는것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당의 승리에 높이 모시고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혁명적당건설의 새 력사를 안아오신 불멸의 업적은 세계정치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라명성

외국의 인사들 높이 칭송

만경대고향집회를 방문한 외국 인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통일정부실행청 외교관사업국친선대표단 단장 체렌드르키안분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고향집회방문을 통하여 김일성주석의 위인적품목가 어디에 바탕을 두고있는가를 잘 알게 되었다.

만경대고향은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에서 탄생하신 경애하는 주석께서는 부모님으로부터 혁명적교양을 받으시며 성장하셨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고 조선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었다.

로제야주체사상영도자위원장

이 딸 리 아 단 체

주체사상세계대회소집결정을 지지

이 딸리주체사상영도자위원장 주체사상세계대회소집결정을 지지하여 16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주체사상세계대회소집결정을 지지하여 16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주체사상세계대회소집결정을 지지하여 16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길을 환히 밝혀주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고 계신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이 땅우에 주체의 세대가 열리게 되었으며 조국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있어서 희망의 등대로 되고있다.

오늘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선군혁명영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뜻깊게 맞이하는것은 우리모두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이 딸 리 아 단 체

주체사상세계대회소집결정을 지지

이 딸리주체사상영도자위원장 주체사상세계대회소집결정을 지지하여 16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주체사상세계대회소집결정을 지지하여 16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주체사상세계대회소집결정을 지지하여 16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길을 환히 밝혀주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고 계신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이 땅우에 주체의 세대가 열리게 되었으며 조국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있어서 희망의 등대로 되고있다.

오늘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선군혁명영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뜻깊게 맞이하는것은 우리모두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로씨야 인터넷 잡지 '우리 나라의 자연흐름식물길'을 소개

로씨야인터넷 잡지 《리브쥬르날》이 16일 《조선에서의 자연흐름식물길 건설》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글은 우리 나라에서 세 세기에 들어와 개진-태생흐름식물과 백마-철산식물길, 미루벌포동공사가 짧은 기간에 완공됨에 대하여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자연흐름식물길들이 건설됨으로써 조선에서는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마련되고 나라의 토지리원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물을 끌어올리는데 들인 많은 량의 전기를 절약하게 되었다.

자연흐름식물길은 공업용수

와 생활용수를 보장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높고낮은 산과 언덕, 도로를 꿰뚫고 마을들을 에둘러서 조경하는데 아름다움과 풍경을 조성하고있다.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영도밑에 완공된 자연흐름식물길들은 근면한 조선인민에게 보다 큰 이익을 가져다주고있다.

서방의 그릇된 견해를 비난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 세에드 알리 카메네이가 22일 한 담화식상에서 서방세계에 대한 서방사회의 그릇된 견해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서방사회에서 서방의 착취의 대상으로 간주되고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미국의 모략책동 규탄

레바논국회의 의원 알리 파드가 23일 미국의 모략책동을 규탄하였다.

22일 미행정부가 레바논에 국력향진인 히즈볼라를 테러조직으로 격고하면서 이 조직에 대한 강경대응을 제창한

제방건설, 습지보호사업

중국에서 큰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방건설에 힘을 넣고 있다.

제 1차 5개년계획기간 전국적으로 1만 7 080km의 제방을 새로 건설하거나 보수하였다. 그리하여 저수능력이

지진

솔로몬제도에서 16일 리히터척도로 6.3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원은 땅속 약 40km 깊은 곳에 있었다.

또한 필리핀의 민도로섬에서 23일 리히터척도로 5.7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진앙은 섬의 서부지역 앞바다에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핵 시험에 합의

일본의 각계에서 23일 미국이 새로운 형식의 핵무기시험을 감행함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날 나가사키시장은 미국집권자에게 항의문을 제출하여 그러한 핵시험은 《핵무기없는 세계를 지향하는 수많은 사람

들의 기대를 배반하는것이다.》라고 규탄하였다.

한편 나가사키현에 있는 5개의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주민미국대사관에 제출한 항의문에서 미국의 어떠한 핵시험도 용납될수 없다고 단죄하였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체포소동에 계속 열을 올리고있다. 23일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서안지역의 여러 시들에 쳐들어가 폭압행동을 일삼던 끝에 9명의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을 체포해갔다. 【조선중앙통신】

피난민수 증가

동아프리카나라들에서 흑인난민수가 늘어났다.

13일 유엔은 4월초까지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국적인 자연재해

얼마전 스위스에서 세계재방지회의가 진행되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열린 회의에는 약 170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2 700명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이것은 인간의 생존과 활동, 사회경제발전에 치명적위협을 몰아오는 자연재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와 그에 공동으로 대처해나갈려는 노력의 표시였다.

우리의 행성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각인 형태도 뜻밖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체험하고 있다.

최근년간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는 세계적관점에서 볼 때 지난 시기에 비해 발생건수에 있어서나 규모와 파괴력에 있어서 엄청났것들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있다.

지난해를 놓고보자. 지난해 7월 아이티에서 리히터척도 7.3의 지진이 발생함에도 이 충격에서 강한 지진과 함께 해일이 일어났으며 튀르파라 이슬란드의 이자르칼라르비델에서 화산이 분출하였다. 화산분출과 함께 생긴 화산재로 유럽항공운행이 마비되었다. 중국에서의 지진과 투데현산사태, 파키스탄과 인도에서의 큰물피해, 보기 드문 고온과 건조한 날씨로 인한 로씨야에서의 산불피해 등은 지난해에

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은 레바논인들사이에서 분쟁을 야기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인민이 단결하여 나라의 안정과 자주권을 수호할것을 호소하였다.

381억㎡ 더 늘었다.

또한 중국 남회족자치구에서 습지보호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현재 자치구에는 4개의 습지자연보호가 꾸려져있는데 그 면적은 11만 3 000ha

에 달한다. 이것은 자치구습지총면적의 4.8%를 차지하는것으로 된다.

자치구에서 습지들이 보호됨에 따라 생태환경이 현저히 개선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오늘의 세계

동서간의 편향이 종식된다고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편향의 유물은 세계도처에 남아 여러 나라와 민족, 지역,의 안전과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있다.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편향적정신을 기화로 세계를 일구어온것은 미국의 반지구, 반평화적정신에 기인한다.

이에 대하여 꾸바의 피델 카스트동지는 최근에 발표한 글에서 미국이 제국주의권력을 가지고 날치면서 인류를 제멋대로 통괄하고 속이고있으며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뻔뻔스럽게도 다른 나라들을 마음대로 쥘수려라려 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세계를 영원히 온순하게 길들일수 있다고 믿고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라고 단죄하였다. 유엔주요장관회의대표는 지난해 19일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의 《꾸바소설처럼》이 꾸바에서 미국에로의 비법적인 탈출을 조장시키고있다고 하면서 세계 그 어디에도 이런 법이 없다고 규탄하였다.

꾸바혁명승리후 미국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꾸바를 반대하여 정치, 경제, 외교 등 각 분야에서 봉쇄와 고립압살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여왔다. 그 과정에 《로리퍼법》, 《헬름스-버크법》, 《꾸바소설법》 등

의 책동을 걸음마다 깃부서버리면서 자기 선택한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해나가고있다. 꾸바정부는 미국의 모략선전책동을 저지파란시키기 위해 전과정에 주시할때 대일 결정을 채택하고 조선에서 매일 24시간 전과정을 조정하면서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반꾸바방송을 성취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있다.

미국의 비법한 봉쇄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더욱 분발해나선 꾸바인민은 지난해에 나라의 경제를 2.1% 성장시키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꾸바당과 정부는 미국의 침략위협에 대처하여 무장장비수준을 높이고 군사훈련들을 정기적으로 조직진행하는 등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오만성을 보기 좋게 꺾어내고있다.

미국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을 깃부서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확신있게 전진하는 꾸바인민들의 투쟁은 국제사회의 광범한 지지를 받고있다. 지난해 4월 꾸바에서는 꾸바공산당 제6차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날에 즈음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100건이 훨씬 넘는 축전을 보내었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와 압력책동을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꾸바인민에 대한 국제적연대성의 표시이다.

미국의 대꾸바적대시책에 의해 10여년동안 부당하게 미국에 감금되어있는 5명의 꾸바에국자들을 석방하기 위한 꾸바인민의 투쟁에 반대하여 110개 나라들이 꾸바에국자들의 석방을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발히 움직이고있다.

정의가 승리하고 부정의가 패하는것은 역사발전의 합법적성이며 진리이다. 미국은 세계인민을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반꾸바고립압살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의 생존과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최근시기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의 대부분은 기후변화에 의한것이라고 한다. 어떻게 고통을 주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는 본질에 있어서 인재라고 할수 있다.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는 책임은 산업혁명이후 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를 사용으로 막대한 재부를 축적해온 서방나라들에 있다. 발전된 나라들은 오늘까지도 세계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70% 이상을 소비하고있으며 세계온실효과가 가장심중한 절반이상을 방출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나라들은 어떤지런 당치 않은 구실을 내뱉으며 지구온난화방지에 성근하게 나서지 않고있다.

최근년간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국제적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회의들에서 온실효과가 가장심중한 부문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사실 그 때부터는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은 과거의 일도, 먼 미래의 일도 아니다. 그것은 눈앞에 닥쳐온 현실이다. 서방은 웅당 그 장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국적인 자연재해

본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자기 할바를 다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자연개조능력이 높아 지는것은 당연한 리치이다. 실제로 여러 나라들은 적지 않은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정대응을 위함으로써 그 피해를 극력 줄이고있다. 그러나 현대과학기술발전이 지니고 있는 파국적인 재난이 사람들의 머리에 들쳐왔던것이다.

대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미행정부와 지방당국들이 태풍이 닥쳐올 때는 물론 태풍피해를 입은 후에도 구조와 복구대책을 강구하지 않았고, 미국은 자기 나라에서 50년래의 가장 파국적인 자연재해로 된다고 하였다. 그만큼 태풍피해상황은 참혹하였다. 당시 중국의 신화통신, 일본의 《아사히신문》과 NHK방송 등 국제여론은 이 재해가 미국정부 사정에 태풍피해를 미치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그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평하였다. 사실 그 때부터는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은 과거의 일도, 먼 미래의 일도 아니다. 그것은 눈앞에 닥쳐온 현실이다. 서방은 웅당 그 장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국적인 자연재해

본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자기 할바를 다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자연개조능력이 높아 지는것은 당연한 리치이다. 실제로 여러 나라들은 적지 않은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정대응을 위함으로써 그 피해를 극력 줄이고있다. 그러나 현대과학기술발전이 지니고 있는 파국적인 재난이 사람들의 머리에 들쳐왔던것이다.

대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미행정부와 지방당국들이 태풍이 닥쳐올 때는 물론 태풍피해를 입은 후에도 구조와 복구대책을 강구하지 않았고, 미국은 자기 나라에서 50년래의 가장 파국적인 자연재해로 된다고 하였다. 그만큼 태풍피해상황은 참혹하였다. 당시 중국의 신화통신, 일본의 《아사히신문》과 NHK방송 등 국제여론은 이 재해가 미국정부 사정에 태풍피해를 미치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그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평하였다. 사실 그 때부터는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은 과거의 일도, 먼 미래의 일도 아니다. 그것은 눈앞에 닥쳐온 현실이다. 서방은 웅당 그 장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국적인 자연재해

본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자기 할바를 다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자연개조능력이 높아 지는것은 당연한 리치이다. 실제로 여러 나라들은 적지 않은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정대응을 위함으로써 그 피해를 극력 줄이고있다. 그러나 현대과학기술발전이 지니고 있는 파국적인 재난이 사람들의 머리에 들쳐왔던것이다.

대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미행정부와 지방당국들이 태풍이 닥쳐올 때는 물론 태풍피해를 입은 후에도 구조와 복구대책을 강구하지 않았고, 미국은 자기 나라에서 50년래의 가장 파국적인 자연재해로 된다고 하였다. 그만큼 태풍피해상황은 참혹하였다. 당시 중국의 신화통신, 일본의 《아사히신문》과 NHK방송 등 국제여론은 이 재해가 미국정부 사정에 태풍피해를 미치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그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평하였다. 사실 그 때부터는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은 과거의 일도, 먼 미래의 일도 아니다. 그것은 눈앞에 닥쳐온 현실이다. 서방은 웅당 그 장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국적인 자연재해

본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자기 할바를 다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자연개조능력이 높아 지는것은 당연한 리치이다. 실제로 여러 나라들은 적지 않은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정대응을 위함으로써 그 피해를 극력 줄이고있다. 그러나 현대과학기술발전이 지니고 있는 파국적인 재난이 사람들의 머리에 들쳐왔던것이다.

대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미행정부와 지방당국들이 태풍이 닥쳐올 때는 물론 태풍피해를 입은 후에도 구조와 복구대책을 강구하지 않았고, 미국은 자기 나라에서 50년래의 가장 파국적인 자연재해로 된다고 하였다. 그만큼 태풍피해상황은 참혹하였다. 당시 중국의 신화통신, 일본의 《아사히신문》과 NHK방송 등 국제여론은 이 재해가 미국정부 사정에 태풍피해를 미치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그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평하였다. 사실 그 때부터는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은 과거의 일도, 먼 미래의 일도 아니다. 그것은 눈앞에 닥쳐온 현실이다. 서방은 웅당 그 장

인류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국적인 자연재해

본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자기 할바를 다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자연개조능력이 높아 지는것은 당연한 리치이다. 실제로 여러 나라들은 적지 않은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정대응을 위함으로써 그 피해를 극력 줄이고있다. 그러나 현대과학기술발전이 지니고 있는 파국적인 재난이 사람들의 머리에 들쳐왔던것이다.

대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미행정부와 지방당국들이 태풍이 닥쳐올 때는 물론 태풍피해를 입은 후에도 구조와 복구대책을 강구하지 않았고, 미국은 자기 나라에서 50년래의 가장 파국적인 자연재해로 된다고 하였다. 그만큼 태풍피해상황은 참혹하였다. 당시 중국의 신화통신, 일본의 《아사히신문》과 NHK방송 등 국제여론은 이 재해가 미국정부 사정에 태풍피해를 미치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그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평하였다. 사실 그 때부터는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은 과거의 일도, 먼 미래의 일도 아니다. 그것은 눈앞에 닥쳐온 현실이다. 서방은 웅당 그 장